

반도체특화단지 수도권 집중... 지역균형발전 역행

투자 총 550조 중 300조 몰아줘
산업정책 수도권 유리하게 편재
“어떤 기업이 지역 오려고하겠나”
광주 미래차·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 최종 후보지 선정

정부가 광주를 미래자동차, 고흥을 우주발사체 분야 국가첨단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하지만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지역균형 발전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을 보고,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6개 분야 ‘국가첨단산업단지(산단)’ 15곳을 발표했다. 광주시 미래차 국가산단은 339만㎡(100만평) 규모로 광주 광산구 삼도동 빛그린국가산단 인근에 조성된다. 산단에는 전기차·수소차·자율주행차·배터리 등 기업이 입주될 예정이다.

고흥 우주발사체국가산단은 봉래면 외나로도 일원에 173만㎡(52만평) 규모로 조성된다. 고흥 산단에는 우주발사체 조립·부품 제조 전·후방 기업과 발사체 연구기관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고흥군은 지난해 국가산단 공모에 참여, 19개 지자체와 치열한 경쟁 끝에 유치에 성공했다.

특히 광주시의 경우 지난 2009년 9월



15일 국토교통부의 신규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이 포함됐다. 사진은 광주 광산구 빛그린산업단지 인근의 후보지.

빛그린국가산단 지정 이후 14년만에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한다 규모에 있어서도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중 5번째로 커 만족스럽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15개 국가산단 후보지는 총 4076만㎡(1200만평), 민간 투자 유치 규모도 550조원으로 역대 정부 중 최대, 최대 규모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산단 최종 후보지 지정인 만큼 국가전략산업 연관성과 지역균형발전 등 의지를 담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정이 지역균형발전을 고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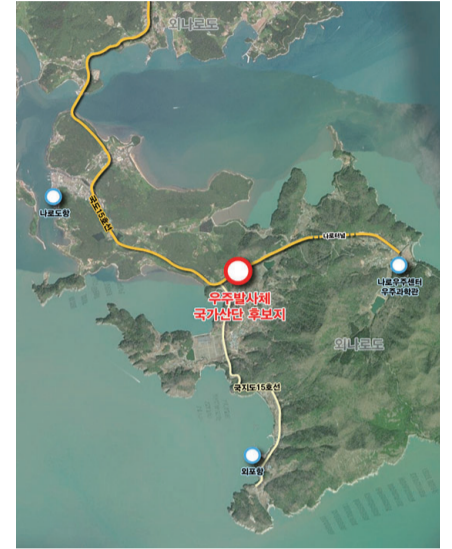
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민간투자 유치 규모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서다.

산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42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산단이 조성되는 경기 용인에 300조원이 투입되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550조원의 민간투자유치 규모 중 절반이 넘는 금액이다.

경기 용인을 제외한 14개 지역에는 250조원이 할당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토부와 산자부가 제시한 산단규모 및 첨단산업 육성분야를 보면 △경기 용인

710만㎡(215만평)·시스템 반도체 △대전 유성 530만㎡(160만평)·나노·반도체 △충남 천안 417만㎡(126만평)·미래모빌리티 경남 창원 339만㎡(103만평)·방위·원자 △광주 광산 338만㎡(102만평)·미래자동차 △고흥 173만㎡(52만평)·우주발사체 등이다.

산단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인프라 확충 등 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비용은 민간투자유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산자부가 밝힌 분야별 투자규모가 곧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수 있는 데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위치도. 전남도 제공

목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정부의 분야별 민간 투자규모를 보면 사실상 수도권 몰아주기라는 해석밖엔 안 떠오른다”며 “산단은 기업유치가 관건인데 정부가 수도권에만 투자를 하면 어떤 기업이 지역으로 오려고 할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시장은 “광주에 10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이 조성되는건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다만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산업과 교육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번 정부 발표는 산업정책에서 수도권에 유리하게 편재돼 서운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박상지·최황지 기자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5월 ‘토-일-월’ 연휴

성탄절도 확정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이 올해부터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오는 5월 토·월요일 연휴가 생긴 셈이

다.

부처님오신날과 함께 성탄절(12월25일)도 대체공휴일로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두 날을 대체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는 게 골자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전체 공휴일 15일 중 신정(1월1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6월6일), 성탄절 등 4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지 않았다.

대체공휴일 적용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 5월27일 토요일인 만큼 그다음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 성탄절은 월요일이라 영향을 받지 않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과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제20회 호남마라톤

대회일시 2023년 4월16일(일) 오전7시~
대회장소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뒤 광장
대회코스 승촌보 영산강문화관 ~ 나주 영산교
종 목 남·여 개인전 10km, 하프
참가비 30,000원

참가신청 호남마라톤 홈페이지 (www.호남마라톤.kr/) / 이메일 419marathon@hanmail.net
접수마감 2023년 3월 31일(금) (선착순 500명)
참가문의 061) 375-1201

주최 全南日報
주관 전일엔컬스 마라톤세상
후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교육청